

먹을거리 불신... 홈메이드 식품 매출 쑥쑥

빵·쿠키·케이크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최근 '먹거리' 불신이 확산되면서 홈메이드식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케이크뿐만 아니라 오코노미야끼(일본식 빈대떡), 아이스크림, 와플, 쿠키, 요거트 등 상품군도 다양해지면서 관련 제품들도 덩달아 판매가 증가했다.

빵·쿠키·케이크·와플 등 직접만드는 '엄마표 제품'에 '웰빙푸드' 매출 크게 늘어 오븐 등 조리도구 판매도 급증



17일 이마트 상무점을 찾은 고객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는 홈메이드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는 지난 9월부터 10월15일까지 프리믹스, 믹서기·주스용품, 제빵용품 매출이 작년동기보다 15.1%, 15.3%, 16.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홈메이드 상품 중 프리믹스의 인기가 높은 것은 밀가루 반죽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과 다양한 재료로 여러가지 모양의 빵과 쿠키를 만드는 것이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키운다는 소문이 주부들 사이에서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지역 이마트도 10월부터 15일까지 홈믹스가 20.2% 신장율을 보인것을 비롯해 육수수

식빵믹스(66.7%), 큐원 우리밀팬케이크믹스(50.0%), 옥잠쌀 인절미 믹스(45.8%) 순으로 판매가 늘었으며 마이홈케이크믹스(29.5%)와 오투기 도너츠 가루(13.9%)도 잘 나갔다. 홈메이드 상품으로 알고 있는 케이크뿐만 아니라 오코노미야끼, 아이스크림, 와플, 쿠키, 요거트 등 상품군도 다양해졌다. 케이크믹스도 무리밀, 찹쌀 등 재료를 활용한 상품에서부터 머핀믹스, 깨알빵 등으로 종류가 세분화됐다. 케이크의 토핑으로 사용되는 아몬드 슬라이스, 코코아 파우더, 건포도 등도 판매되고 있다.

이마트는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믹스 등의 홈메이드 제품과 밀가루 등의 원재료를 활용해 각종 모양을 낼 수 있는 초콜릿믹스, 케이크커터, 머핀 포장지 등 제빵 용품·전기오븐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홈메이드 인기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오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오븐 전체 매출은 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스팀오븐과 광파형 오븐은 40~10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팀 오븐은 300도 이상의 고온 스팀을 활용, 케이크 등을 조리할 때 수분함유량을 늘리고 열

분 등을 증발시켜 칼로리를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마트가 올해 3월 출시한 러빙홈 원역기도 월평균 1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홈메이드 바람에 한 몫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 5일 휴무제로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됐다"며 "이는 집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먹는 '웰빙트렌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기능성 살린 신제품 선보여

국제신발산업전시회 참가
올 매출 2000억 이상 기대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주)콜핑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부산 국제신발산업전시회'(BI-FOT 2013·사진)에 참가해 기능성을 극대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한 다양한 가을·겨울시즌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기술을 적용한 새 제품들은 고기능의 익스트림 라인,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트레킹 라인, 기능성과 패션성을 가미해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캠프트 라인, 오토캠핑 라인으로 나뉘어 전시됐다. 특히 브라운, 옐로우, 카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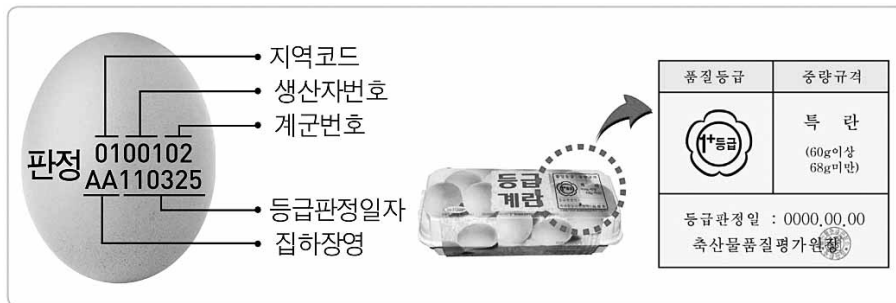
린 등 자연색과 트렌드를 살리고 기하학적인 프린트 등의 기법으로 활동적이며 경쾌한 아웃도어의 이미지를 살렸다. 박만영 회장은 "히말라야에서도 국내 산에서도 콜핑이면 충분하다"며 "전국 350개 매장과 미국 2개 매장, 중국 50여개의 매장에서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 '글로벌 톱 5'를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콜핑은 대령명 등반대회와 세계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등의 공식 후원업체로서 대한민국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며 섬유산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계란에도 등급, 알고계셨나요?

등급제 시행 10년됐지만 '깜깜' 광주YWCA 소비자 홍보 캠페인

"계란등급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광주YWCA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란등급제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계란등급제는 신선도에 따라 1+(플러스)와 1~3등급으로, 크기에 따라서 왕란(68g 이상), 특란(60g~68g 미만), 대란(52g~60g 미만) 등으로 구분한다. 시행된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의무화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YWCA 직원과 모니터 요원 등 40여명이 계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등급 제도를 홍보하는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품질이 좋은 계란은 깨뜨렸을 때 흰자나 노른자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노른자위가 높이 솟아 있으며, 흰자위도 2개의 층이 확실히 보일 만큼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계란을 구입할 때는 깨뜨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계란등급제가 의무화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유정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부장은 "계란의 외관뿐만 아니라 노른자의 위치와 상태, 외부 실금까지 투광관으로 비쳐



보거나 직접 깨뜨려 상태를 파악하는 할란관정을 통해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등급제가 의무화 되면 소비자가 품질 좋은 계란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YWCA는 11월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산물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통신비 부담 덜 '단말기 유통법' 제정 해달라

알뜰폰업계 촉구

알뜰폰 사업자(MVNO)들의 연합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과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알뜰폰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동사 보조금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전화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조정 가능)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H.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